

광주 양림동-영국 웨일즈, 신진 예술가 창작 교류로 연결되다

양림미술관거리협의회 교류 워크숍
9일 양림동, 6월9일 웨일즈 카디프
“특정 지역 모티브 작품 제작 목표”

양림동은 광주의 오래된 마을로 '보물창고'와도 같은 곳이다. 정감 넘치는 골목 사이로 다양한 문화 공간들이 들어서 있다. 붉은 벽돌의 선교사 사택, 아기자기한 카페, 이색적인 갤러리 등은 특유의 분위기를 발한다.

근대초기 서양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정착해 선교 외에도 교육, 의료, 문화 활동을 펼쳤다. 골목에 깃든 이야기와 추억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그 의미가 새롭다.

광주비엔날레가 열리는 해에는 양림골목비엔날레가 동시에 열려 골목은 축제의 장소로 변한다. 양림미술관거리협의회가 주관하는 골목비엔날레는 '마을이 미술관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 예술인, 기획자들이 만들어가는 마을 축제다.

광주 양림동과 영국 웨일즈 신진 예술가들이 창작과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화제다.

8일 양림미술관거리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국제 교류 워크숍이 9일 양림동과 오는 6월 9일 영국 웨일즈 카디프에서 열린다.

이번 교류 프로그램은 지난 1월 협의회와 영국 IVAE(International Visual Arts Exchange)가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구체화됐다. 영국 IVAE는 동서양 간 문화교류를 지원하고 예술 실천의 방식을 연구하는 비영리 기관이다.

두 단체는 양 국가의 시각예술 분야 신진 아티스트 및 기획자 교류를 매개로 지역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교류 워크숍을 추진하기로 의기투합했다. 아트디렉터는 정현기 호랑가시나무창작소 대표와 영국 버밍엄 대학교수이자 IVAE 총괄디렉터인 지양제홍(Jiang Jiehong) 교수가 맡았다.

협의회 이은진 매니저는 "이번 워크숍은 두 지역의 신진 예술가들과 기획자들을 대상으로 펼쳐진다"며 "워크숍의 가장 큰 목적은 궁극적으로 특정 지역을 모티브로 장소 특색형 작품을 제작하는 데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워크숍이 가능한 장소는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을 한다"며 "워크숍 당일 날 작가들은 해당 지역을 방문해 역사적 맥락과 예술적 맥락을 이해하고 새로운 작품에 대한 리서치를 하게 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9일 워크숍에는 한국 작가 20여 명이 참여한다. 이 조흠, 서여름, 박지형, 홍창빛 작가 등이 포함돼 있



2024년 열린 양림골목비엔날레에서 진행됐던 아트살롱 파티 장면.



2024년 열린 양림골목비엔날레에 전시됐던 최석현 작 '평온'.

며 영국 현지 작가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아트디렉터 강연 이후 참여 작가들은 장소 특색형 작품을 설치할 양림동 장소를 둘러보고 스케치 시간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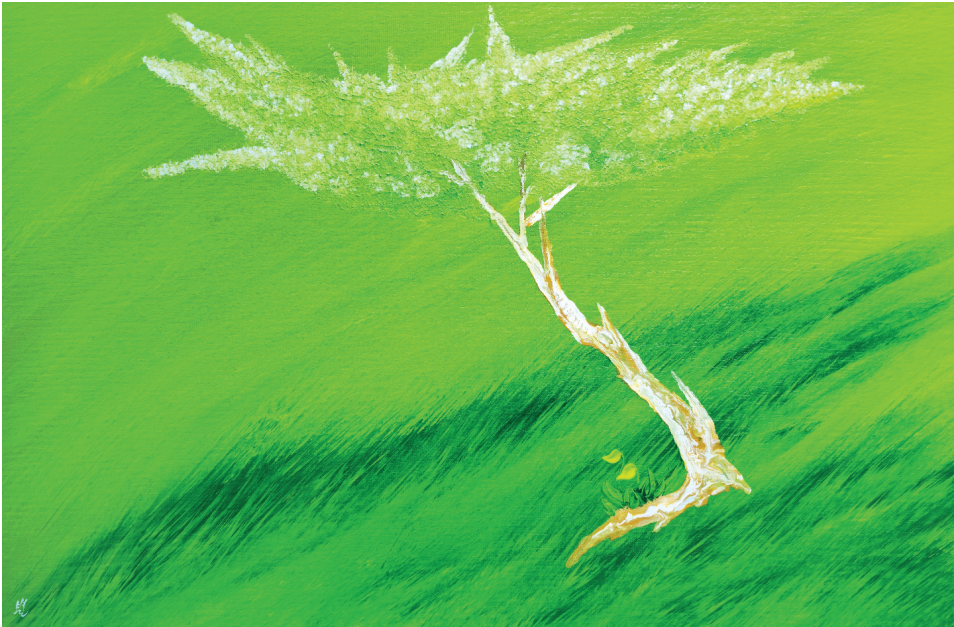
6월 웨일즈 워크숍은 정현기 대표, 미술관협의회 이한호 대표가 참여한다. 두 대표는 양림동 워크숍을 기반으로 영국 현지에서 논의를 이어간다. 양림동 한국 작가들은 온라인으로 연결해 현지와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2026년 광주비엔날

레 기간 양림동골목비엔날레에서는 장소 특색형 작품을 양림동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 워크숍 참가자는 광주 신진 및 청년작가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했으며 국내외 기획자 40명이 참여한다.

이은진 매니저는 "교류 워크숍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내년에는 소통과 협의를 통해 다른 협력 프로그램도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무한의 여백, 공과 무의 만남’

‘무한의 여백, 공과 무의 만남’

정창기 초대전, 10일까지 우제길미술관

불교적 사유와 철학의 토대인 '공(空)'과 '무(無)'를 이해하기는 어렵다. '공'과 '무'는 일반적인 빈 공간, 없음의 의미가 아니다. 고전화되고 독립적인 개체로서의 실체를 뜻하는 것도 아니다.

그 무엇도 고정된 것이 없다는 것은 '공'으로 연계되며 변화 가능성을 내재한다.

공과 무를 모티브로 묵직한 주제의 전시가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정창기 화백의 초대전 '무한의 여백, 공과 무의 만남'이 우제길미술관에서 오는 10일까지 진행 중이다. 박경식, 김민경이 공동 기획자로 참여했으며, 전시에는 정 작가의 작품 세계를 가능할 수 있는 서양화 11점이 출품됐다.

그동안 정 작가는 '공'과 '무' 개념을 토대로 여백이 발현하는 심미적 아름다움, 무한의 철학적 사유 등을 화폭에 담아왔다.

언급한 대로 '비움'은 특정한 자리의 공백을 상징하지 않는다. 관객들로 하여금 작품을 감상하고 '대화'할 수 있게 하는 적극적인 장치로 작용한다. 관객은 작가의 그림을 보며

자신만의 상상의 나래를 펴고 감성을 느낄 수 있다.

이번 초대전은 자연의 생명력을 구현한 작품 외에도 신작들도 선보인다.

작품 '무한의 여백:공과 무의 만남'은 배면에 동양과 서양의 조화로운 만남이 드리워져 있다. 화려하면서도 강렬한 색감, 신비로움이 깃든 동양적 결은 이채로운 분위기를 환기한다. 어디가 산이고 나무이며 하늘인지 그 경계를 구분할 수 없다. 경계의 무화는 '공과 무의 만남'이라는 불교적 주제로 수렴된다.

푸른 초원을 배경으로 선 나무를 구현한 작품에도 경계는 없다. 자유로우면서도 활발한 분위기가 봄의 서정과 맞물려 '공'과 '무'의 의미를 확장한다.

한편 김민경 화에서는 "봄의 시작과 함께 정 작가의 작품 속 자연은 다시 숨을 쉰다"며 "정갈한 붓질과 고요한 색감이 어우러진 그의 작품 세계를 통해 삶의 여백 속 작은 평안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장계네, 명길네, 민관이네에 불어온 ‘따스한 봄바람’

연극문화공동체DIC ‘그대는 봄’
24일~5월17일 동구 공연일번지

하루가 멀다하고 티격태격하는 장계네와 명길네, 그 사이에서 다툼을 말리는 착한 민관이네.

평화롭던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날, 민관이네가 치매 진단을 받는데. 서서히 기억을 잃어가는 친구를 위해 장계네와 명길네는 동분서주하지만 현실은 쉽지가 않다.

설상가상으로 장계네 강아지인 순심이마저 세상을 떠나고 만다. 함께 순심을 맡아주던 세 할머니는 한가지 약속을 한다.

“우리 봄 되든 이쁜 옷 입고 꽃구경 가자”

연극문화공동체DIC는 오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소극장 공연일번지(광주시 동구 금남로 218-9)에서 연극 ‘그대는 봄’을 선보인다.

작품은 시골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세 할머니의 삶과 우정을 진솔하게 담았다.



소극장 공연일번지에서 오는 24일부터 연극 ‘그대는 봄’이 펼쳐진다. 배우들이 공연 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 <연극문화공동체DIC 제공>

김정숙이 극본을 쓰고, 임흥석이 연출을 맡았다. 배우로는 문진희, 강인영, 박경단이 출연한다.

임흥석 연출가는 “누군가의 아내이자 어머니였을 세 할머니의 시원시원한 유머와 따뜻한 인간미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라며 “평생 자기 이름으로

불려본 적 없는 이들이 자기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함께 따라가며 관객들에게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석 2만5000원. 티켓링크 예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김성훈 소설 ‘길목의 무늬’ 같이 읽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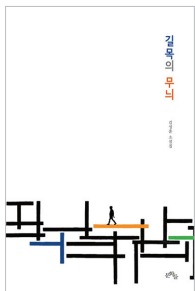
‘열다섯 번째 동료작가 소설 읽기’, 24일 비트윈 디제이 아카데미 학원

최근 발간된 김성훈 작가의 ‘길목의 무늬’는 호남의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이름이 지워졌던 이들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집이다. 여수를 배경으로 쓴 ‘정오의 끝자리, 빛’, 부마항쟁 이야기를 다룬 ‘홍콩빠 이모’, 세월호 생존자들이 겪는 트라우마를 모티브로 한 ‘결’ 등이 대표적이다.

소설가인 이미란 전 전남대 교수가 진행하는 ‘열다섯 번째 동료작가 소설 읽기’는 김성훈 작가의 ‘길목

의 무늬’를 텍스트로 한다. 오는 24일 오후 2시 비트윈 디제이 아카데미 학원 1층.

김 작가는 서울에서 강사생활을 하다 30대 초반 고향 해남으로 내려왔다. 낙향 후 지역 아이들을 위한 교육 활동을 하는 틈틈이 전남대 대학원에서 문화재협동과정 공부를 병행했다. 지역의 설화 조사, 지역 자원과 연계된 시민기자 활동을 하며 자연스레 문화유산으로 관심이 확대된 것.



김 작가는 명지대에서 문예창작학을 공부하고 목포대 국어교육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현재 전남대 문화재협동과정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창작 활동은 지난 2022년 목포문학상 남도작가상을 받으면서 시작했다.

한편 이미란 소설가는 “이번 동료작가 소설 읽기 열다섯 번째 시간은 김성훈 소설가를 초청했다”며 “‘길목의 무늬’라는 작품집 제목이 말해주듯 소설 속 다채로운 삶의 ‘길목’을 사유하고 이야기를 나누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북구문화센터에서 26일 가족극 ‘고래바위에서 기다려’가 펼쳐진다. 공연의 한 장면.

<북구문화센터 제공>

환상의 세계 ‘고래바위에서 기다려’

북구문화센터, 26일 어린이날 특별기획 가족극 무대

환적인 바닷가 마을의 고래바위. 날이 저물고 친구들도 모두 돌아간 모래사장에서 '바다'는 오늘도 낡은 글러브 '퐁퐁'을 들고 아빠를 기다린다.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바다는 상상의 날개를 펼치고, 고래 뱃속을 여행하는 신비로운 모험을 떠난다.

가족극 '고래바위에서 기다려'가 오는 26일 북구문화센터 어린이날 특별기획으로 무대에 오른다.

작품은 지난 2021년 아동·청소년극 부문 신춘문예 당선작으로 주목받은 이후, 2023년 영국 애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참가하고, 2024년 아시테지 서울어린이연극상 대상과 연출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외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아왔다.

특히 공연은 '블랙라이트'와 '놀이'이라는

독특한 연출로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어둠 속 야광 불빛으로 펼쳐지는 무대, 그리고 바닥에 누운 채 연기하는 배우들의 모습은 천장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2D 스크린으로 중계된다.

아이들은 공연을 통해 고래의 뱃속을 탐험하고 해저 생물을 만나며, 바다와 우주를 넘나드는 신비롭고 환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될 예정이다.

나기백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이 작품은 어른들에게는 있고 있던 동심을 떠올리게 하고, 아이들에게는 상상력의 날개를 달아주는 특별한 공연”이라며 “많은 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 즐기며 따뜻한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